

# 도서관불안척도의 개발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Library Anxiety Scales

박 현 영(Hyun-Young Park)\*\*  
남 태 우(Tae-Woo Nam)\*\*\*

### 목 차

- |                  |                         |
|------------------|-------------------------|
| 1. 서 론           | 3.1 연구대상 및 분석방법         |
|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2 척도 개발을 위한 분석        |
|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4. K-LAS 의 개발 결과 및 사후검증 |
| 2. 이론적 배경        | 4.1 K-LAS의 개발 결과        |
| 2.1 도서관불안의 개념    | 4.2 변인에 따른 사후검증 결과      |
| 2.2 도서관불안의 연구모델  | 5. 결 론                  |
| 3. 연구 설계 및 분석    |                         |

### 초 록

이 연구는 국내 대학도서관 이용자들의 도서관불안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한국형 도서관불안척도(K-LAS)를 개발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와 도서관 이용 후기 보고서 분석, 3차례의 설문조사를 통한 재측정법을 수행하였다. 설문조사는 대학의 재학생수와 도서관 규모를 고려하여 4개 대학을 대상으로, 2005년 9월 3일부터 2006년 3월 23일까지 실시하였다. 연구의 분석은 전문가 집단에 의한 내용타당성을 검증하고, Cronbach's 투 이용한 신뢰도 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이용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검증하였다. 또한, K-LAS를 이용하여 도서관의 규모, 이용자의 성별과 학업 연한, 이용자의 도서관 이용 빈도 등 일반적인 변인들과 도서관불안과의 상관관계를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6요소 40문항으로 구성된 K-LAS가 개발되었다. 6요소로는 물리적·환경적 요소, 도서관 이용 및 지식 요소, 과제 및 연구 요소, 디지털 정보 요소, 도서관 직원에 관한 요소, 심리적·정서적 요소 등으로 설정되었다. 도서관불안과 변인과의 사후검증에서는 도서관 직원에 관한 요소를 제외한 5개 요소는 각 2개 이상의 변인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 ABSTRACT

This study is conformed to having library anxiety of our domestic university library users, and, to developing the Korean Library Anxiety Scales(K-LAS). The research methods is literature research, library use postscript report analysis, and questionnaire survey. The research subjects were selected to be 4 universities in consideration of their student number and library scale. The research period was from September 3, 2005 to March 23, 2006. The questionnaire survey was administered in the liberal arts courses which all the students could take. The development method of the Library Anxiety Scale are the content validity test by expert group, reliability test and validity test of SPSS Program. Also, the correlation between library variables and library anxiety was tested by using K-LAS. The results of this study developed the K-LAS, which was composed of 6 factors and 40 items. 6 factors were set up as physical · environmental factor, library use and knowledge factor, task and research factor, digital information factor, and the factor on library staff, and psychological ·emotional factor. According to the post-test results of the correlation between library anxiety and variables, 5 factors except the factor on library staff were correlated with more than 2 variables respectively.

키워드: 도서관불안, 정보탐색과정, 이용자 연구, 한국형 도서관불안척도, Library Anxiety, K-LAS

\* 본 연구는 중앙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요약한 것임.

\*\* 협성대학교 학술정보관 운영과장(hypark@uhs.ac.kr)

\*\*\* 중앙대학교 문현정보학과(namtw@cau.ac.kr)

논문접수일자 2006년 8월 7일

게재확정일자 2006년 8월 15일

## 1. 서 론

###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학문·연구 활동은 인지과정, 문제해결과정, 정보탐색과정 등의 복합적인 과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도서관은 이러한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핵심 기관이다. 도서관에서는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제를 정하고, 적합 정보를 찾아, 활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또한 이 과정은 학업을 마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이용 과정에서 이용자들은 도서관불안이 빈번하게 발생되어 정보 활용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도서관불안에 관한 연구는 1986년에 Mellon에 의해 6,000명의 학생이 참여한 2년간의 질적 연구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Bostick(1992)과 Van Kampen(2002)은 미국의 대학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도서관불안척도를 개발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의 환경을 적용한 척도뿐만 아니라 도서관불안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조차 이루어진 바가 없었다. 도서관불안이 다양한 개인적 기질이나 상황, 또는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한국이라는 특성이 고려된 새로운 척도와 논거가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국내 대학도서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형 도서관불안척도(Korean Library Anxiety Scales, K-LAS)를 개발하고자 한다. 또한 이용자의 일반적인 상황인 도서관의 규모, 이용자의 성별, 학업연한, 이용자의 도서관 이용 빈도가 도서관불안과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하여 규명하고자 한다.

###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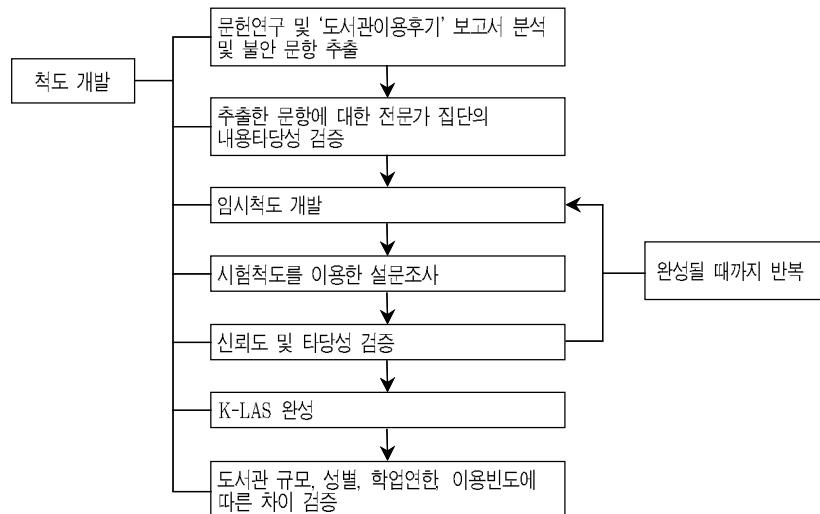
도서관불안척도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연구, 도서관 이용 후기 보고서 분석을 비롯하여 설문조사 방법을 수행하였다. 문헌연구를 통해서, 도서관불안의 개념 및 연구 모델을 설정하였으며, 교육 및 도서관의 환경 변화로 인한 이용자의 불안심리를 도출하였다. 도서관 이용후기 보고서 분석을 통해서, 국내의 대학도서관 이용자들에게도 도서관불안이 존재하는지를 파악하였다. 이를 근거로 임시척도를 구성하였으며, 3차례의 설문조사를 수행함으로써 척도 개발을 수행하였다.

분석 방법으로는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즉, 전문가 집단에 의한 내용타당성 검증을 통하여, 요소수와 문항들을 추출하고, 다음으로 Cronbach's  $\alpha$ 를 이용한 신뢰도 분석, 확인적 요인분석을 이용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검증하였다. 또한, K-LAS를 이용하여 도서관의 변인들과 도서관불안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검증 방법으로는 SPSS를 이용한 ANOVA 분석과 DUNCAN 분석 독립 표본 t-검정을 수행하여 분석적 결과를 제시하였다. K-LAS를 개발하기 위한 척도 개발 절차는 <그림 1>과 같다.

## 2. 이론적 배경

### 2.1 도서관불안의 개념

도서관불안의 개념은 1986년에 Mellon에 의해 6,000명의 학생이 참여한 2년간의 질적 연구



〈그림 1〉 척도 개발 절차

에서 시작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75%에서 85% 사이의 학생들이 처음으로 도서관을 이용한 경험에 대해 불안, 두려움, 압도당하는 기분, 혼란은 느낌, 무기력, 혼동, 공포 등으로 경험한다는 것을 밝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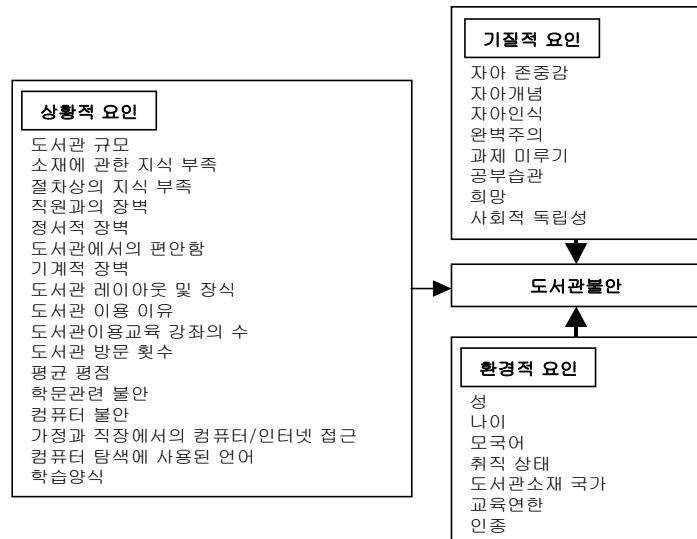
Onwuegbuzie(2004)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동안 발생되는 불안에는 다른 학문관련 불안과 마찬가지로, 기질적, 상황적, 환경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고 밝혔다. 기질적 요인이라 개인의 내재적 요인을 의미하며, 상황적 요인은 자극을 둘러싸고 있는 직접적인 환경을 의미한다. 또한, 환경적 요인은 개인의 외재적 요인으로 개인의 인구분포적인 요인과 관련이 있다. 이들 3가지 요인들은 전반적인 도서관불안을 결정하는데 상호작용한다. 다음의 〈그림2〉는 도서관불안을 유발시키는 요인들과의 관계를 도식화한 것이다.

다음의 〈그림2〉에서, 기질적, 상황적, 환경적 요인에 따라 도서관불안의 수준이 다르게

나타난다면,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도서관 이용에 있어서도 도서관불안 요인에 차이가 있다. 즉, 우리나라 학생들의 기질적 특성, 우리나라의 교육환경, 또는 우리나라 도서관의 상황적 특성 등과 더불어, 과제·연구에 있어 자신감 부족, 학문 수행을 위한 도서관 경험 부족, 도서관 이용에 있어서의 능력 부족 등의 요인들로 인해, 도서관불안은 발생할 수 있다.

불안의 유형은 크게 상태불안과 특성불안으로 구분한다. 특성불안은 개인의 인성이며, 영구적으로 존재하는 심리상태로써 광범위하게 나타나며, 상태불안은 시간이나 장소에 따라 변동되는 일시적인 불안 상태이다. 컴퓨터 불안, 연구조사 불안, 통계학 불안, 수학불안, 쓰기 불안, 외국어 불안, 시험불안 등의 학문관련 불안은 시간과 상황에 해당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상태불안에 해당된다.

도서관불안 역시 상태불안의 경향을 보이는 학문관련 불안이다. 이들 중에서 학문 과정의



〈그림 2〉 도서관불안 요인의 개념도

출처 : A. J. Onwuegbuzie et al., *Library Anxiety: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s*, 2004, p.41.

전반에 해당되는 것으로써, 도서관불안과 유사한 것은 시험불안과 컴퓨터 불안을 들 수 있다. 시험과 컴퓨터 이용은 도서관 이용과 마찬가지로 학업과정동안 지속적으로 수행되는 것인 만큼 어느 시점에서든지 불안이 발생될 수 있다. 즉, 이들 학문관련 불안은 그 상황에 닥쳐 있거나, 예상하는 동안부터 발생하는 불안일 뿐만 아니라, 상호연관 관계를 갖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도서관불안은 역시 도서관을 이용할 계획이 있거나 도서관을 이용하는 동안 나타나는 상태불안이며, 다른 학문 불안과 상호연관성을 갖는다.

## 2.2 도서관불안의 연구 모델

도서관불안의 연구기반 모델에는 ISP(정보탐색과정) 모델, DSE(기질적-상황적-환경적)

모델, ILP(정보이용과정) 모델이 있다.

### 1) Kuhlthau의 ISP 모델

정보탐색과정 (Information Search Process, ISP) 모델은 정서적 변인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동안을 6단계의 검색 과정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ISP 모델은 탐색시작, 주제선정, 탐색조사, 초점형성, 정보수집, 그리고 탐색종료의 6단계로 〈표 1〉과 같이 제시되었다.

다음 〈표 1〉과 같이, 탐색과정의 제1단계는 탐색시작으로, 정보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과제를 이해하고 이를 선행연구와 연계시킴으로써 필요성은 인식하는 단계이다. 제2단계 주제선정은 찾고자 하는 포괄적인 논제를 확인하고 선택하는 단계이다. 논제가 신속하게 결정되지 않을 경우, 다른 학생들에 비해 자신만 잘 수행

〈표 1〉 Kuhlthau의 ISP 모델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ISP	탐색착수	논제선정	탐색조사	초점형성	정보수집	탐색종료	
감정	불확실성	낙관적	혼동 좌절 의구심	명료화	방향설정 확신감	안심	만족/불만
사고	모호성			→ 구체성 → 관심증대			
행동	적합한 정보 탐색			→ 적절한 정보 탐색			
행위	인식하기	확인하기	조사하기	형성하기	수집하기	마무리	

하지 못하는 것 같아 두려움을 느낀다. 제3단계는 탐색조사 단계로, 자신의 이해를 확장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논제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단계이다. 학생들은 논제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발견했을 때 불일치와 모순으로 인해 많은 혼동을 경험하게 된다. 제4단계는 초점형성 단계로, 구체적인 초점으로 집중시키기 위해서 논제에 대해 포괄적인 정보를 조사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학생들은 보통 연구과제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제5단계는 정보 수집 단계로, 집중시킨 초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일이다. 이 단계에서 학생들은 자신감을 갖고 탐색 방향을 설정하게 된다. 마지막 제6단계는 탐색종료 및 과제표현 단계로, 탐색을 종료하고 보고서 작성을 시작하게 된다. 탐색 종료는 적합 문헌의 탐색이 감소될 때, 중복 자료가 많아질 때, 충분한 노력을 했다고 느꼈을 때, 또는 시간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연구 과제를 제출해야 할 시기에 임박했을 때, 탐색을 종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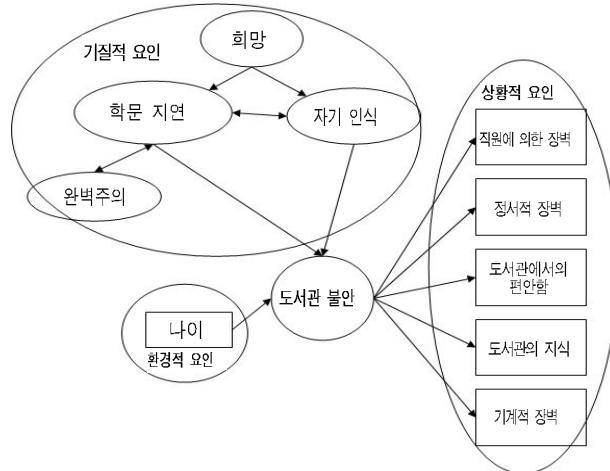
MacMullin과 Taylor(1984)는 정보탐색과정에는 단계마다 인지적 영역(사고), 정서적 영역(감정), 물리적 영역(행동)으로 구체화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즉, 물리적 영역은 탐

색에 수반되는 실제 행동의 측면을 말하고, 정서적 영역은 탐색과정에서 경험하는 감정적 측면, 그리고 인지적 영역은 과정 및 내용과 관련된 사고의 측면으로 구성한다. 이용자는 3개의 영역 간에 복잡한 상호작용에 의한 일련의 선택과정을 통해서 정보요구의 착수단계에서 궁극적인 해결 상태에 이르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선택의 기준은 선행 경험, 지식, 흥미, 이미 입수한 정보, 과제의 선결요건, 문제해결에 들일 수 있는 시간적 여유, 검색된 정보 내용의 적합성과 같은 환경적 요인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는다.

## 2) Onwuegbuzie와 Jiao의 DSE 모델

Onwuegbuzie와 Jiao(2002)는 도서관불안의 개념 구조에 의거하여 도서관불안의 기질적, 상황적, 환경적 (Dispositional-Situational-Environmental, DSE) 모델을 설정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도식화하였다.

다음 〈그림 3〉의 DSE 모델에 의하면, 자기 인식에서부터 도서관불안까지, 학문지연으로부터 도서관불안까지, 나이로부터 도서관불안까지는 직접적인 관계이다. 한편, 기대와 도서관불안 사이에 관계는 자기 인식과 학문지연에



&lt;그림 3&gt; Onwuegbuzie와 Jiao의 DSE 모델

의해 전달되며, 완전주의와 도서관불안 사이는 학문 지연에 의해 전달되었다. 즉, 기대와 완전주의는 도서관불안과 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다.

Onwuegbuzie와 Jiao의 DSE 모델은 최소한 2개의 변인들만큼은 Kuhlthau의 ISP 모델과 일치한다. 즉, 학문지연(즉, 도서관 과제를 연기하는 것)과 자기 인식(예, 신뢰성)은 또한 ISP 모델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예를 들면, Kuhlthau의 주제 선정 단계에서 만약 선정이 늦어지거나 지연(학문 지연) 되면 불안은 증가되고 신뢰성(자기 인식)은 감소하게 된다.

### 3) Onwuegbuzie, Jiao, Bostick의 ILP 모델

Onwuegbuzie와 Jiao(2002)는 학습과정동안 입력, 처리, 출력 3단계의 정보이용 단계를 설정하여 정보이용과정(Information Literacy Process, ILP)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 단계마다 작업 조건을 최적으로 조절함으로써 문제를 최적으로 해결하게 된다.

ILP 모델에 따르면, 도서관불안은 입력 단계

에서 발생한다. 입력단계는 도서관 이용자가 처음으로 자극에 마주칠 때이다. 불안은 이 새로운 정보의 효율적인 처리를 방해한다. 예를 들면, 도서관 이용자는 머리 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 문현에서 발췌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이 단계에서 불안 수준은 외부적 자극을 인정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집중하고, 부호화하는 이용자의 능력에 의존한다. 이 단계에서 높은 수준의 불안을 갖고 있는 도서관 이용자는 자주 과제-부적절한 정보와 자료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 때문에 입력을 받는 능력은 최소화된다.

둘째, 도서관 불안은 과제에 새로운 이해를 적용함으로서 기술할 수 있는 처리와 함께 간섭한다. 이용자는 새로운 정보를 이해할지는 모르지만 명확한 문제에 새로운 지식을 적용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단계에서 불안은 가까운 장래에 입력 자료를 변화시키고 과제에 대한 해결을 생성시키는 과정을 방해함으로서 정보 활용을 방해할 수 있다.

셋째, 도서관불안은 응답의 아웃풋을 방해한다. 아웃풋 단계에서 도서관 불안은 이용자가 이전에 습득된 자료를 증명하도록 요구했을 때에 불안을 끌어들인다. 특히, 이 단계에서의 도서관 불안은 다른 개개의 학문관련 불안과 결합한다. 즉, 논문을 쓰기 위해서 정보를 검색하여 문헌을 획득했을 때와 동시에 논문을 작성해야 하는 쓰기 불안은 도서관 불안과 상호작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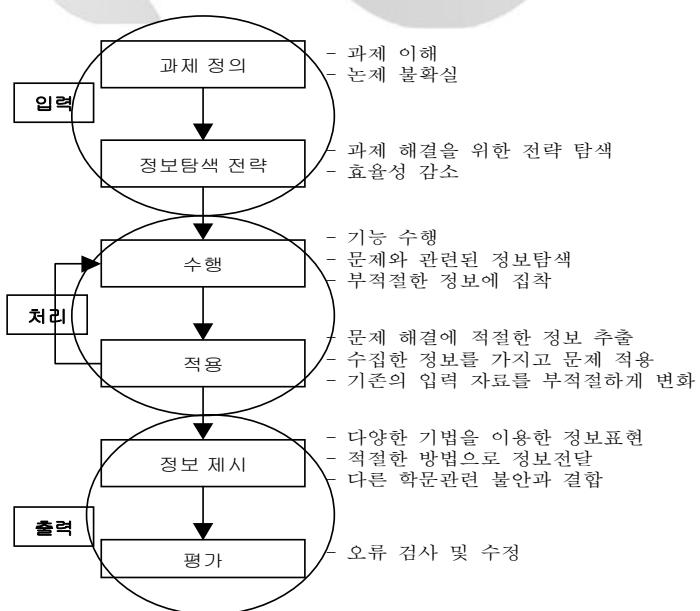
학문 과정에서 정보이용능력은 기본적인 학습 및 연구방법론으로 자리잡고 있다. 도서관 불안 또한 정보이용능력의 부족이 원인이 되어 나타난다는 것을 선행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었다. 도서관불안 연구모델들의 비교를 통해서, 도서관에서의 과제·연구 수행과 같은 문제 해결 과정이 단계별로 이루어지면서도 각 단계가 복합적이고 상호연관성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도서관불안은 도서관에서 과제 해결을 목적으로 한 ISP에서 개인의 기질적 특성이나 환경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심리상태이다. 이용자와의 심리는 도서관 내에서 사고하고, 처리하고, 행동하는 일련의 과정들에 의해서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도서관에서의 불안 수준 또한 다르게 나타난다. 즉, 이용자의 자신감에 따른 안정과 혼란, 불명확한 수행결과로 인한 불안이 반복적으로 교차한다.

### 3. 연구 설계 및 분석

#### 3.1 연구대상 및 분석방법

이 연구의 대상은 도서관불안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기초조사에 451명이 참여되었으며,



〈그림 4〉 Onwuegbuzie, Jiao, Bostick의 ILP 모델

임시척도를 제작하기 위한 사전조사에는 20명의 학생이 참여되었다. 3차에 걸친 임시척도 조사를 위한 설문지는 1차에 160부, 2차에 171부, 3차에 196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조사기간은 1차, 2005년 11월 15일부터 22일, 2차 2006년 3월 2일부터 10일, 3차 임시척도 조사기간은 2006년 3월 16일부터 23일 사이에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 학생은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개설된 교양과목의 수강생으로 선정하였다. K-LAS의 조사 대상 학생들의 학년별 전공별 분포는 아래의 <표 2>와 같다.

다음 <표 2>의 연구 대상에 대한 학년 및 전공 분포를 살펴보면, 2학년과 3학년 학생이 가장 많이 참여하였고, 1학년이 가장 적은 수의 학생이 참여하였다. 참여한 학과는 6개의 단과

대학으로 대부분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문과대학 학생들이 32.7%(64명)로 가장 많이 참여하였다. 반면, 경영대학 학생들은 5.6%(11명)로 가장 적은 수가 참여하였으나 단과대학의 구분이 각 대학마다 다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연구의 분석 방법으로는 전문가 집단의 내용 타당성 검증을 우선으로 하였으며, 검증된 문항은 신뢰도 분석과 요인분석을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이 연구에서의 내용타당성 검증방식은 연구 논제에 따른 임시척도 문항의 적절성을 평가하여 수정이나 삭제를 결정하게 하고, 한편 그 요소를 중심으로 누락되어 있는 문항을 추가하였다. 전문가 집단의 선정 기준은 도서관이용교육 강의를 3년 이상 경험한 대학 사서,

<표 2> K-LAS의 연구 대상 분포

전공 대학	학년				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문과대학	4	31	13	16	64
	6.3%	48.4%	20.3%	25.0%	100.0%
	11.4%	55.4%	23.2%	32.7%	32.7%
사회과학대학	9	11	10	2	32
	28.1%	34.4%	31.3%	6.3%	100.0%
	25.7%	19.6%	17.9%	4.1%	16.3%
이공대학	7	4	13	17	41
	17.1%	9.8%	31.7%	41.5%	100.0%
	20.0%	7.1%	23.2%	34.7%	20.9%
경영대학	3	1	5	2	11
	27.3%	9.1%	45.5%	18.2%	100.0%
	8.6%	1.8%	8.9%	4.1%	5.6%
정경대학	0	7	15	12	34
	0.0%	20.6%	44.1%	35.3%	100.0%
	0.0%	12.5%	26.8%	24.5%	17.3%
예술대학	12	2	0	0	14
	85.7%	14.3%	0.0%	0.0%	100.0%
	34.3%	3.6%	0.0%	0.0%	7.1%
전체	35	56	56	49	196
	17.9%	28.6%	28.6%	25.0%	100.0%

대학도서관에 소속되어 있는 경력 10년 이상의 참고사서, 교육심리학자, 도서관불안 연구자, 도서관 멀티미디어실 담당사서 등 5명으로 정하였다.

### 3.2 척도개발을 위한 분석

#### 3.2.1 도서관불안 유무 분석

국내 도서관 이용자의 도서관불안 여부는 도서관 이용후기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되었다. 자료 배부 및 수집은 2005년 9월 3일부터 10월 24일 사이에 실시하였다. 전체 참여 학생들 451 명 중에서, 하나이상 불안을 기술한 학생이 84.7%(382명)이며, 도서관에서 불편함을 전혀 느끼지 않는 학생이 7.8%(35명)이었다. 부정적인 인식으로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기술한 학생은 1.1%(5명)이었으며, 일반적인 사항을 체크하였으나 보고서 내용은 기술하지 않은 학생이 6.4%(29명)이었다. 따라서 보고서 중에서는 불안을 표현한 학생과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 85.8%(387명)를 기초조사에 사용하였다.

기초조사를 통하여, 우리나라 학생들의 도서

관 이용에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찾아볼 수 있었다. 첫째,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은 개인적인 특성에 의해 불안을 느낀다고 기술한 학생도 있었지만, 둘째, 도서관 자료 이용 방법의 인식으로 인한 차이도 발견되었다. 즉,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과제 연구 과정을 도서관에서 다양한 참고자료 등을 활용하여 하나의 결과물이 만들어지는 것까지를 도서관 이용으로 인식하기보다는, 과제에 해당하는 교재나 부교재를 대출하는 것까지만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도서관 환경에서 여러 다양한 변인들이 학생들에게 도서관 불안을 일으키도록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 기초조사를 통해서, 국내 대학생들은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 3.2.2 척도 개발을 위한 분석

도서관불안척도에 사용할 문항 선정은 Bostick의 LAS 43문항, Van Kampen의 MLAS 67문항, 본 연구의 기초조사에서 추출한 53문항을 통해 수집한 127개 문항을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타당성을 검증받아 구성하였다. 127문항은

〈표 3〉 기초조사에서의 보고서 분류

구 분	빈 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불안 표현 학생 a	382	84.7	84.7	84.7
편안함 표현 학생 b	35	7.8	7.8	92.5
이용하지 않는 학생 c	5	1.1	1.1	93.6
불필요한 데이터 d	29	6.4	6.4	100.0
합 계	451	100.0	100.0	

- a. 한 가지 이상 불안 또는 불만을 기술한 학생
- b. 도서관에서 불편함을 전혀 느끼지 않는 학생
- c. 부정적인 인식으로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
- d. 일반적 사항을 체크하였으나, 이용후기는 기술하지 않은 학생

2차례 전문가 집단과의 협의에 의한 조작적 정의를 통해 56문항으로 축소하였다 3 차례의 임시척도 조사와 이에 대한 내용타당성 검증 및 신뢰성 검증을 통해 확정된 척도는 6요소 40문항이다.

### 1) 전문가 집단의 내용타당성 분석

전문가 집단의 검증에서는 두 가지 문제를 분석하였다. 하나는 문항의 공통점과 대립점을 분석하였으며, 다른 하나는 불안과 불만에 대한 용어를 다시 고칠해 봄으로써, ‘도서관불안’ 용어를 더 명확하게 확정하였다. 전문가 집단의 내용타당성 검증을 통해서 정한 척도의 요소 및 문항 구성을 위한 기본 개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심리학자는 ‘도서관불안’이라는 용어가 도서관이라는 장소로서의 불안으로 고려되기 때문에, 새로운 용어 정의가 요구된다고 제의하였다. 도서관을 물리적인 시설로만 보는 협의의 개념보다는 ‘도서관 환경에서의 이용’라는 광의의 개념으로 보고, 이 연구에서는 ‘도서관불안’ 용어를 그대로 채택하였다.

둘째, 전문가 집단에 의해서 불안과 불만의 개념을 각각 정의하여 불안문항만을 추출하였다. 이용자의 불만이란 이용자가 도서관보다 자신을 더 우위로 평가하였을 때 나타나는 감정이며, 도서관불안이란 도서관의 규모나 시스템에 대해 스스로 위축됨으로 해서 나타나는 감정을 말한다. 선행연구와 기초조사에서는 불안과 불만의 내용이 혼재되어 있었다. 선행연구에서는 도서관 직원의 불친절, 기기의 고장 및 기기의 관리 소홀 등을 불만 문항으로 분류하였으며, 기초조사에서는 작은 규모의 도서관, 열악한 시설, 서가의 난열 상태 등을 불만 문항

으로 분류하였다. 즉, 도서관의 시설, 직원, 자료 등을 이용함에 있어 신뢰감이 떨어지고 불평으로 표현된 내용을 불만 문항으로 간주하고 제거하였다.

셋째, 불안 문항에서도 불안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문항은 제외하였다. 즉, ‘청구기호나 서가 배열순서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은 본인이 도서관에 관련한 지식이 없어서 불안을 느끼는 문항으로 볼 수 있으나, ‘도서관이용교육은 필요하다’는 도서관에 관련한 지식의 부족에 대한 해결 방책이므로 불안 문항으로 간주할 수 없다.

### 2) 신뢰도 분석

임시척도를 통해 조사된 자료의 Cronbach  $\alpha$ 를 이용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3차례의 임시척도를 이용하여 조사한 문항 수 및 신뢰도는 아래의 〈표 4〉와 같다.

다음 〈표 4〉에서 3차 임시척도의 전체 Cronbach  $\alpha$ 는 0.85의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각 조사에서 문항 제거시 높은 Cronbach  $\alpha$  계수를 갖게 되는 문항들은 전문가의 내용타당성을 검증받아 삭제하였다.

이렇게 하여, K-LAS는 도서관 이용 및 지식 요소가 9개의 가장 많은 문항들로 구성되었으며, Cronbach  $\alpha$ 는 0.809의 측정치를 보였다. 또한, 도서관 직원 요소가 5개의 가장 적은 문항수로 구성되었으며, 0.816의 높은 내적 일관성을 나타냈다.

### 3) 요인분석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집단의 내용타당성을 검증받은 6개 요소를 6개 요인으로 고정하여

〈표 4〉 3차의 임시척도 조사의 신뢰도 검증

요 소	문항 수			제거 전 Cronbach α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요소 I	7	6	6	0.632	0.590	0.584
요소 II	12	9	9	0.767	0.825	0.809
요소 III	8	8	6	0.776	0.471	0.649
요소 IV	8	9	7	0.512	0.562	0.593
요소 V	5	6	5	0.707	0.819	0.816
요소 VI	10	7	7	0.694	0.615	0.601
전 체	50	45	40	0.895	0.805	0.850

Varimax 방법으로 요인분석을 실행하였다. 요인 분석 결과, K-LAS의 전체 설명변량은 45.93%로 적절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상기의 〈표 5〉에서, ①요인에 높은 부하량을 나타낸 요소II의 설명량은 16.2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요소 I과 요소V는 모든 문항들이 각각 ④요인과 ②요인에서 높은 부하량을 보였다. 즉, 요소 I과 요소V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타당도를 보였다. 요소II에서는 7번 문항과 12번 문항을 제외한 7개 문항들이 ①요인에서 높은 부하량을 보였다. 여기에서 제외된 12번 문항은 ①요인에서 두 번째로 큰 부하량을 보였기 때문에 유의한 타당도가 있다고 간주한다. 요소III은 20번 문항을 제외한 5개 문항이 ③요인에서 높은 부하량을 보였다. 요소IV와 요소VI에 있어서는 각 문항들이 6개 요인에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요소VI에는 ③요인에 3개 문항, ②요인과 ⑤요인에 2개 문항, ⑥요인에 1개 문항으로 산재되어 있었다.

이 연구에서의 내용타당도에 의해 분석된 6개 요소는 요인분석 검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타당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요인분석의 결과는 다음의 스크리 도표로 나

타낼 수 있다. 요인수를 6개로 고정하여 확인된 ①요인의 고유값 6.51에서 ⑥요인의 고유값 1.80까지의 결과는 아래 〈그림5〉의 스크리 도표로 확인할 수 있다.

## 4. K-LAS의 개발 결과 및 사후검증

### 4.1 K-LAS의 개발 결과

이 연구의 결과, 6요소 40문항의 K-LAS를 개발하였다. 이 K-LAS는 Likert식 5점 평정 척도로 구성하였다. 즉, ①‘아주 그렇다’, ②‘다소 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그렇지 않다’, ⑤‘전혀 그렇지 않다’로 구성하였으며, 또한 ⑥‘해당하지 않거나 경험하지 않은 경우 이 번호에 표함’을 두어 경험하지 않은 문항을 분명히 구분하였다. K-LAS로 사용된 요소 및 문항은 다음 〈표 6〉과 같다.

### 4.2 변인에 따른 사후검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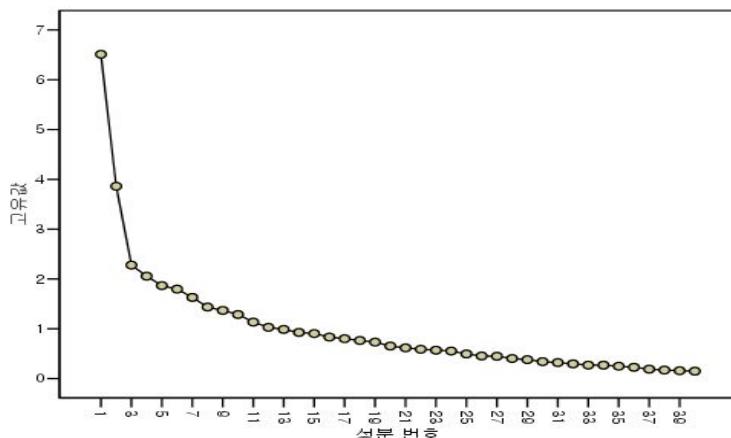
이 절에서는 도서관의 규모, 이용자의 성별과 학업 연한, 이용자의 도서관 이용 빈도를 변

〈표 5〉 K-LAS의 요인분석

요 소	문항 번호	요 인					
		①	②	③	④	⑤	⑥
요소 I	1	0.046	-0.215	0.234	0.274	0.223	-0.105
	2	0.208	-0.028	0.189	0.540	0.000	0.164
	3	0.217	0.014	0.010	0.640	0.117	-0.026
	4	0.018	0.157	-0.099	0.597	0.019	-0.150
	5	0.207	0.092	-0.160	0.391	0.332	-0.002
	6	0.122	0.078	0.104	0.402	0.009	0.231
요소 II	7	0.074	-0.028	0.158	0.404	0.167	0.036
	8	0.517	-0.092	0.171	0.345	0.056	-0.098
	9	0.588	-0.012	0.083	0.132	-0.109	0.201
	10	0.693	0.129	0.080	0.158	0.062	0.024
	11	0.594	0.037	0.138	0.113	-0.052	0.050
	12	0.353	-0.025	0.207	0.464	-0.017	-0.026
	13	0.653	0.023	0.071	0.288	0.011	-0.046
	14	0.744	-0.017	0.011	-0.019	0.185	0.015
	15	0.761	0.159	0.058	0.009	0.123	-0.017
	16	0.214	0.166	0.650	-0.127	0.126	0.140
요소 III	17	0.243	-0.204	0.578	0.170	-0.131	0.003
	18	0.285	0.104	0.587	0.171	-0.200	-0.027
	19	0.275	0.143	0.325	0.313	0.027	-0.106
	20	0.052	0.002	-0.109	0.207	0.258	0.270
	21	0.240	0.023	0.423	0.103	0.190	-0.053
	22	-0.142	-0.019	-0.009	0.028	0.225	0.651
요소 IV	23	0.064	0.236	0.172	0.171	-0.663	-0.273
	24	0.007	0.304	0.156	0.033	-0.626	-0.297
	25	0.139	0.162	-0.035	0.358	-0.162	0.463
	26	-0.206	0.281	0.336	0.377	-0.213	0.100
	27	0.089	0.612	-0.023	0.040	-0.023	-0.036
	28	-0.072	0.397	0.184	0.281	-0.232	0.117
	29	0.250	0.448	0.023	0.050	-0.128	0.398
요소 V	30	0.023	0.749	0.061	0.097	0.044	-0.079
	31	0.104	0.836	0.037	-0.053	-0.069	-0.040
	32	0.010	0.644	0.425	0.000	-0.147	0.060
	33	0.072	0.758	0.355	0.025	-0.019	0.198
	34	-0.126	0.180	0.537	0.164	0.001	-0.012
요소 VI	35	0.021	0.156	0.713	-0.040	-0.079	0.061
	36	0.059	-0.085	0.105	-0.088	0.034	0.670
	37	-0.071	0.428	0.045	0.057	0.194	-0.273
	38	0.098	0.235	0.497	0.128	0.381	-0.094
	39	0.014	0.080	0.141	0.330	0.741	0.003
	40	0.254	0.067	0.220	0.154	0.584	-0.229
	설명변량	16.28	9.65	5.70	5.14	4.67	4.49

요인추출 방법: 주성분분석. 회전방법: Kaiser 정규화가 있는 Varimax

a 9번 반복계산에서 요인회전이 수렴되었습니다.



〈그림 5〉 K-LAS의 스كري 도표

〈표 6〉 K-LAS 문항

번호	문 항	요소
1	도서관은 공부하기에 편안한 곳이 아니다	요소 I
2	나는 도서관의 규모에 압도당하는 기분이 듈다	물리적
3	도서관의 많은 자료실은 복잡하여 어디로 가야할지 당황스럽다	.
4	도서관 내부 공간은 외부로부터 차단되어 갇혀진 기분이다	환경적
5	도서관은 환경이 좋지 않아 건강에 해가 될 것 같다	
6	나는 도서관의 많은 자료들 속에서 압도당하는 기분이 듣다	
7	나는 도서관에서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는 것이 용이하다	
8	나는 도서관에서 필요한 자료를 어떻게 찾아야 할지 난감하다	
9	필요한 책이 도서관에 없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10	도서검색을 한 다음에 어디로 가야할지 몰라 당황스럽다	요소 II
11	검색결과에서 대출 가능한 책을 서가에서 찾을 수 없을 때 초조해진다	도서관 이용
12	같은 주제의 자료들이 서로 다른 서가에 배열되어 있어 혼란스럽다	및
13	도서의 분류기호와 서가배열순서를 보면 신경이 예민해진다	지식
14	나는 셀프 기기(본인이 직접 처리해야 하는 기기들, 예) 무인대출반납기, 복사기 등)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여진다	
15	도서관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알지 못해 긴장하게 된다	
16	나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선택한 자료가 적합한지 확신이 없다	요소 III
17	도서관에는 정보가 너무 많아서, 나는 때때로 적합한 정보를 놓칠 것이다	과제
18	책은 많이 있으나 어떤 책을 봐야할지 선뜻 손이 가지 않는다	및
19	도서관 이용을 통한 과제 수행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피하게 된다	연구
20	나는 도서관에서 과제를 할 때 유능하다고 느낀다	
21	다양한 자료를 이용하여 주제를 요약하는 것에 대하여 자신이 없다	
22	나는 도서검색시스템을 편하게 이용한다	요소 IV
23	검색결과에 책의 내용에 관한 도움말이 없어 막막하다	디지털 정보
24	도서관의 도서검색은 인터넷 지식검색과는 다르게 느껴진다	
25	나는 온라인 학술DB를 이용하려면 긴장된다	

26	나는 집에서 도서관의 온라인 학술DB에 접근하는 것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진다	
27	도서관의 온라인 개인정보는 보호되지 않는 것 같다	
28	나는 온라인 학술DB에서 어떤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해 막막하다	
29	나는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기가 부담스럽지 않다	
30	도서관 직원들은 나를 도와줄 시간이 없다	요소 V
31	만일 내가 책을 서가에서 찾을 수 없으면 나를 도와줄 직원이 없다	
32	나는 사서에게 어느 정도의 도움을 청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도서관 직원
33	나는 도서관에서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구에게 청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34	나는 자료를 찾지 못할 때, 다른 사람들은 많은 자료를 찾았을 것 같아 조급해진다	
35	정보조사 시간이 길어지면 초조해지고 포기하게 된다	요소 VI
36	도서관은 나에게 편안하고 친근한 곳이다	
37	도서관의 분위기는 웬지 답답하고 부담스럽다	심리적
38	책을 제대로 찾지 못할 때 내 자신이 부끄럽다	
39	나는 도서관 자료를 훼손 또는 분실하게 될 것 같아서 이용을 피한다	정서적
40	도서관의 규칙은 너무 엄격하여 위축된다	
총	40	6

인으로 하여 도서관불안과의 상관관계를 검증하였다.

#### 4.2.1 도서관의 규모와 도서관불안과의 상관 관계

이 연구에서는 도서관 규모와 도서관불안과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ANOVA 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는 아래의 <표 7>과 같다.

다음 <표 7>의 분석에 따르면, 요소 I, 요소 II, 요소III, 요소VI 은 유의수준(a)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요소IV 와 요소V 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도서관의 규모는 6개 요소 중에서 요소 I, 요소 II, 요소III, 요소VI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 <표 8>은 도서관불안의 요소가 도서관 규모와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하여 DUNCAN 검증을 실시하였다

다음의 <표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요소 I

은 규모가 가장 큰 A대학 도서관과 규모가 가장 작은 D대학도서관이 동일한 ②번 요인에 묶여있다. 도서관 규모별 평균의 차이는 C대학과 D대학의 순서 외에는 일정하게 배열되어 있다. 요소II 분석에서는 B대학도서관이 C대학, D대학, A대학 도서관들과 각각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의 격차가 가장 큰 A대학도서관과 D대학도서관은 동일한 요인으로 묶여 있으며, B대학, C대학과 D대학끼리는 차이가 크지 않다. 요소III에는 도서관의 규모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일정 부분 간접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요소VI에 대한 분석 결과는 D대학과 B대학, D대학과 A대학, C대학과 A대학이 각각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도서관 규모와 도서관불안의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ANOVA 분석에서는 유의수준 0.05로 하였을 때, 6개 요소 중에서 요소 I, 요소II, 요소III, 요소VI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구체적으로 어떠한 도서관 규모에 따라 차

〈표 7〉 도서관 규모에 의한 ANOVA 분석

요 소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검정	유의확률
요소 I	집단-간	4,539	3	1,513	4,223	0.006*
	집단-내	68,795	192	0,358		
	합계	73,334	195			
요소 II	집단-간	7,195	3	2,398	4,996	0.002*
	집단-내	92,174	192	0,480		
	합계	99,370	195			
요소 III	집단-간	3,622	3	1,207	3,403	0.019*
	집단-내	68,121	192	0,355		
	합계	71,743	195			
요소 IV	집단-간	1,075	3	0,358	1,060	0,367
	집단-내	64,887	192	0,338		
	합계	65,962	195			
요소 V	집단-간	0,600	3	0,200	0,299	0,826
	집단-내	128,546	192	0,670		
	합계	129,146	195			
요소 VI	집단-간	5,733	3	1,911	6,219	0,000*
	집단-내	59,000	192	0,307		
	합계	64,733	195			

\* p &lt; 0.05

〈표 8〉 도서관 규모에 따른 DUNCAN 분석

요소	요인	①	②	③
요소 I	C	D, B, A	x	
요소 II	C, D, A	B	x	
요소 III	D	B	x	
요소 VI	D, C	C, B	B, A	

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한 DUNCAN 검증에서는 도서관 규모가 요소 VI 와는 상관관계가 있으나 요소 II 와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요소 I 과 요소 III 은 도서관 규모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으나, 일정 부분 간접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분석은 도서관불안이 도서관의 규모 외에 또 다른 변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 4.2.2 이용자의 성별에 따른 도서관불안의 차이 검증

이 연구에서는 도서관불안이 이용자의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규명하였다. 이용자의 성별에 따른 기초통계량은 다음 〈표 9〉와 같다.

다음 〈표 9〉의 이용자의 성비는 남학생 37.24% (73명), 여학생 62.75% (123명)이었다. 6세 요소별로 불안한 정도를 살펴보면, 남자보다 여자가 높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표 9〉 이용자의 성별에 따른 집단 통계량

요 소	성별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요소 I	남	73	3.706	0.567	0.066
	여	123	3.433	0.619	0.056
요소 II	남	73	3.327	0.709	0.083
	여	123	3.082	0.704	0.063
요소 III	남	73	3.153	0.678	0.079
	여	123	2.987	0.554	0.050
요소 IV	남	73	2.957	0.557	0.065
	여	123	2.875	0.596	0.054
요소 V	남	73	3.089	0.884	0.103
	여	123	3.045	0.772	0.070
요소 VI	남	73	3.269	0.570	0.067
	여	123	3.186	0.580	0.052

이 연구에서는 독립된 두 집단에 대한 평균의 차이를 검정하는 독립 t-검정을 수행하였다. 이 차이 비교에 앞서, 집단에 대한 분산의 동질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levene의 등분산성 검정

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유의수준 0.05보다 큰 유의확률을 갖는 것으로 보아 두 집단간 분산이 동일함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 성별에 대한 독립표본 t-검정

요 소	Levene 의 등분산		검정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F	유의확률	t	자유도	유의확률 (양쪽)	평균차	차이의 표준오차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I	*	0.162	0.688	3.071	194	0.002	0.272	0.089	0.097
	**			3.140	161.971	0.002	0.272	0.087	0.101
II	*	0.004	0.952	2.349	194	0.020	0.245	0.104	0.039
	**			2.345	150.540	0.020	0.245	0.104	0.039
III	*	3.023	0.084	1.854	194	0.065	0.165	0.089	-0.011
	**			1.761	128.365	0.081	0.165	0.094	0.341
IV	*	0.000	0.984	0.955	194	0.341	0.082	0.086	-0.087
	**			0.972	159.461	0.333	0.082	0.085	0.252
V	*	1.400	0.238	0.371	194	0.711	0.045	0.121	-0.193
	**			0.358	135.565	0.721	0.045	0.125	0.282
VI	*	0.048	0.827	0.979	194	0.329	0.083	0.085	-0.085
	**			0.983	153.487	0.327	0.083	0.085	0.251

I 물리적 · 환경적 요소  
II 도서관 이용 및 지식 요소  
III 과제 및 연구 요소  
\* 등분산이 가정됨  
\*\*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IV 디지털 정보 요소  
V 도서관 직원에 관한 요소  
VI 심리적 · 정서적 요소

상기의 〈표 10〉에서는 요소 I과 요소 II는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 외의 요소들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따라서 성별이 모든 도서관불안 요소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요소 I, 요소 II에 대해서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4.2.3 이용자의 학업연한과 도서관불안과의 상관관계

이 연구에서 이용자의 수준은 1학년에서 4학년까지 학년별로 구성하였다. 수준별로 2학년과 3학년 학생이 28.6%(56명)로 가장 많이 참여하였으며, 다음으로 4학년이 25.0%(49명), 1학년이 17.9%(35명) 순으로 참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도서관불안의 6가지 요소별로 AN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ANOVA 분석 결과는 아래의 〈표 11〉과 같다.

다음 〈표 11〉의 이용자의 학업연한에 따른 도서관불안의 ANOVA 분석 결과에서는 요소 II, 요소 III, 요소 IV는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 외의 요소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음 〈표 12〉는 ANOVA 분석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요소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학년들과 차이가 나는지 DUNCAN 검증하였다.

상기의 DUNCAN 검증 결과, ANOVA 분석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3개 요소 모두는 저학년과 고학년이 뚜렷하게 구분되어 불안의 차이를 나타냈다. 따라서, 이용자의 학업연한은 도서관불안의 6개 요소 중에서 요소 II, 요소 III,

〈표 11〉 학업연한에 의한 ANOVA 분석

요 소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요소 I	집단-간	1,463	3	0.488	1.302
	집단-내	71,871	192	0.374	
	합계	73,334	195		
요소 II	집단-간	5,576	3	1,859	3.805
	집단-내	93,794	192	0.489	
	합계	99,370	195		
요소 III	집단-간	3,034	3	1,011	2.826
	집단-내	68,709	192	0.358	
	합계	71,743	195		
요소 IV	집단-간	2,973	3	0.991	3.021
	집단-내	62,989	192	0.328	
	합계	65,962	195		
요소 V	집단-간	1,398	3	0.466	0.701
	집단-내	127,748	192	0.665	
	합계	129,146	195		
요소 VI	집단-간	1,853	3	0.618	1.886
	집단-내	62,880	192	0.328	
	합계	64,733	195		

\* p < 0.05

〈표 12〉 학업 연한에 따른 DUNCAN 분석

요소	요인	①	②
요소 Ⅱ		1, 2	3, 4
요소 Ⅲ		1	3
요소 Ⅳ		1	3, 4

요소Ⅳ에 영향을 준다고 분석된다. 또한, 요소Ⅵ은 학업연한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으나, 일정 부분 간섭을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 4.2.4 도서관 이용 빈도와 도서관불안과의 상관관계

도서관의 이용 빈도의 집단은 5개로 구분하였다. 주 2회 이상 이용하는 학생을 '가'집단, 주 1회 정도 이용하는 학생을 '나'집단, 월 2회 정도 이용하는 학생을 '다'집단, 월 1회 또는 격

월 정도 이용하는 학생을 '라'집단, 거의 이용하지 않는 학생을 '마'집단으로 하였다. 가집단은 43.4%(85명), 나집단은 20.9%(41명), 다집단은 11.2%(22명), 라집단은 10.2%(20명), 마집단은 14.3%(28명)으로 집계되었다. 도서관 이용 빈도에 대한 ANOVA분석은 아래의 〈표 13〉과 같다.

다음 〈표 13〉의 도서관 이용 빈도에 따른 ANOVA분석 결과, 요소Ⅱ와 요소Ⅲ은 유의수준(α)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표 13〉 도서관 이용 빈도에 의한 ANOVA 분석

요 소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요소 Ⅰ	집단-간	2.973	4	0.743	2.018
	집단-내	70.361	191	0.368	
	합계	73.334	195		
요소 Ⅱ	집단-간	5.588	4	1.397	2.845
	집단-내	93.781	191	0.491	
	합계	99.370	195		
요소 Ⅲ	집단-간	5.988	4	1.497	4.349
	집단-내	65.754	191	0.344	
	합계	71.743	195		
요소 Ⅳ	집단-간	3.004	4	0.751	2.278
	집단-내	62.959	191	0.330	
	합계	65.962	195		
요소 Ⅴ	집단-간	5.281	4	1.320	2.036
	집단-내	123.865	191	0.649	
	합계	129.146	195		
요소 Ⅵ	집단-간	2.811	4	0.703	2.167
	집단-내	61.923	191	0.324	
	합계	64.733	195		

\* p < 0.05 \*\* p < 0.1

보였다.

다음은 도서관불안 요소들이 도서관 이용 빈도의 어떠한 집단들끼리 차이가 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아래의 〈표 14〉와 같이 DUNCAN 검증하였다.

ANOVA 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집단들에 대한 DUNCAN검정에서는 요소Ⅱ와 요소Ⅶ가 이용빈도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5. 결 론

K-LAS의 개발 및 검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불안을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금까지 국내 문현정보학 연구에서는 이용자들의 도서관 불만 요소에 대해서는 연구되어 왔으나, 불안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진 바가 없었다. 따라서, 앞으로 도서관불안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좀더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으로 변화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LAS가 개발되었으며, 척도는 6

요소 4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6개 요소는 물리적·환경적 요소, 도서관 이용 및 지식 요소, 과제 및 연구 요소, 디지털 정보 요소, 도서관 직원에 관한 요소, 심리적·정서적 요소 등으로 설정되었다.

셋째, 도서관의 규모, 이용자의 성별, 학업연한, 도서관이용빈도 등이 도서관불안과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도서관 직원에 관한 요소 외에는 요소별로 2개 이상의 변인간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도서관 직원에 관한 요소는 4개의 변인 모두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이 연구에서 수행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도서관불안과 관련된 도서관 이용자 연구의 방향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서관불안의 긍정적인 측면의 연구도 필요하다. 최근까지 연구자들은 도서관불안이 도서관 이용자들의 능력을 감퇴시키는 효과만을 예측하였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도서관불안은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유리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예컨대, 도서관에서 불안을 전혀 또는 매우 적게 느끼는 도서관 이용자들은 도서관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자만하여 과제 완수에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즉, 도서관에서 어느 정도 낮은 수준의 불안이라도 느낀다면, 도서관 이용자들로서는 도서관 과제를 수

〈표 14〉 도서관 이용 빈도에 따른 DUNCAN분석

요소	요인	①	
		①	②
요소 I	마		다
요소 II	마		가
요소 III	×		×
요소 V	마		다
요소 VII	마		가

행함에 있어 자만하게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가정을 한다.

둘째, 대학교육에 정보탐색 및 활용 교육에 대하여 체계적인 교육 훈련 방안이 필요하다. 도서관 교육이라 함은 ISP 및 연구조사과정을

포함한다. 아직도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학습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도서관을 이용하거나 정보를 찾는 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과 과정이 마련되어야 할 때이다.

## 참 고 문 헌

- 권나현. 2004. 디지털 도서관에서의 도서관 불안과 측정도구 분석. 『한국문현정보학회지』, 38(2): 29-47.
- 남태우, 박현영. 2006.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도서관불안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 37(1): 151-168.
- Bostick, S. L. 1992.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library anxiety scale*. Doctoral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of Wayne State University.
- Jiao, Q. G. Onwuegbuzie, A. J. 2002. Dimensions of library anxiety and social interdependence: Implications for library services. *Library Review*, vol.51, no.2.
- Kuhlthau, Carol. C. 1989. Information Search Process: A Summary of Research and Implications for School Library Media Programs. *School Library Media Quarterly*, vol.18, no.1. Available: <[http://www.ala.org/aasl/SLMR/slmr\\_resources/select\\_kuhlthau2.html](http://www.ala.org/aasl/SLMR/slmr_resources/select_kuhlthau2.html)>.
- [cited 2005. 10. 3].
- Mellon, Constance A. 1986. Library Anxiety: A Grounded Theory and its Development.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47, pp.160-165.
- Onwuegbuzie, A. J. Jiao, Q. G., & Bostick, S. L. 2004. *Library Anxiety: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s*. Oxford, The Scarecrow Press, Inc.
- Spielberger, C. D., Gorsuch, R. L. & Lushene, R. E. 1970. *Manual for the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Palo Alto, California, Consulting Psychologist Press.
- Taylor, A. J. 1953. A Personality scale of manifest anxiety.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48, pp.285-290.
- Van Kampen, Doris Judy. 2002. *Library Anxiety, the information search process and doctoral use of the library*. Doctoral dissertation, The Graduate of the University of Central Florida.

### 〈부록〉 각 임시척도 조사를 통해 추출된 문항

최종	2차	1차		문 항
1	1	1	1	도서관은 공부하기에 편안한 곳이 아니다
2	2	2	2	나는 도서관의 규모에 압도당하는 기분이 든다
3	3	3	3	도서관의 많은 자료실은 복잡하여 어디로 가야할지 당황스럽다
4	4	4	4	도서관 내부 공간은 외부로부터 차단되어 갇혀진 기분이다
x	x	5	5	도서관은 휴식하기에 좋은 장소이다
5	5	6	6	도서관은 환경이 좋지 않아 건강에 해가 될 것 같다
		x	7	도서관의 위치는 이용하기에 불편하다
		x	8	도서관의 시설 및 기기는 열악하여 이용하고 싶지 않다
		x	9	나는 도서관에서 공부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찾을 수 없다
6	6	46	10	나는 도서관의 많은 자료들 속에서 압도당하는 기분이 든다
7	7	7	11	나는 도서관에서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는 것이 용이하다
8	8	8	12	나는 도서관에서 필요한 자료를 어떻게 찾아야 할지 난감하다
	중	10	13	도서관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는 것은 쉽지 않다
9	9	11	14	필요한 책이 도서관에 없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10	10	12	15	도서검색을 한 다음에 어디로 가야할지 몰라 당황스럽다
11	11	13	16	검색결과에서 대출 가능한 책을 서가에서 찾을 수 없을 때 초조해진다
12	12	14	17	같은 주제의 자료들이 서로 다른 서가에 배열되어 있어 혼란스럽다
	x	15	18	필요한 책은 주로 대출되었으며, 그 책을 빌리기는 불가능하다
	중	16	19	많은 책들 중에서 내가 원하는 책을 찾기란 쉽지 않다
	x	19	20	외국어로 쓰인 정보자료는 보기를 피하게 된다
	x	21		나는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는 일련의 과정이 즐겁다
13	13	35	22	도서의 분류기호와 서가배열순서를 이해할 수 없다
		x	23	도서관을 이용하기 위한 교육은 필요하다
14	14	49	24	나는 셀프 기기(본인이 직접 처리해야 하는 기기들, 예) 무인대출반납기, 복사기 등 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여진다
15	15	◎	25	도서관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알지 못해 당황했었다
	x	26		나는 도서관에서 어떤 정보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한다
	x	27		도서관 이용은 시간투자에 비해 실속이 없다
16	18	28		선택한 책이 막상 주제 내용과 맞지 않아 난감해진다
17	20	29		나는 도서관에서 과제를 시작하는 방법을 모르겠다
18	21	30		나는 과제 수행을 위해 도서관을 이용하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x	31		나는 학습과제의 정보조사를 위해서 도서관을 이용한다
16	19	23	32	나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선택한 자료가 적합한지 확신이 없다
17	20	24	33	도서관에는 정보가 너무 많아서, 나는 때때로 적합한 정보를 놓칠 것이다
18	21	25	34	책은 많이 있으나 어떤 책을 봐야할지 선뜻 손이 가지 않는다
19	22	28	35	도서관 이용을 통한 과제 수행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피하게 된다
20	23	22	36	나는 도서관에서 과제를 할 때 유능하다고 느낀다
21	24	◎	37	다양한 자료를 이용하여 주제를 요약하는 것에 대하여 자신이 없다
22	25	29	38	나는 도서검색시스템을 편하게 이용한다
	x	9	39	나는 도서검색시스템보다 서가에서 직접 찾는 것이 편하다
23	26	17	40	검색결과에 책의 내용에 관한 도움말이 없어 막막하다

24	27	30	41	도서관의 도서검색은 인터넷 지식검색과는 다르게 느껴진다
25	28	31	42	나는 온라인 학술DB를 편하게 이용한다
	×	32	43	유료로 제공하는 온라인 자료는 꼭 필요한 자료인지 알 수 없어 이용하지 않는다
		×	44	나는 온라인 학술DB의 접근 절차를 잘 알고 있다
26	29	33	45	나는 집에서 도서관의 온라인 학술DB에 접근하는 것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진다
27	30	34	46	도서관의 온라인 개인정보는 보호되지 않는 것 같다
28	31	◎	47	나는 온라인 학술DB에서 어떤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한다
	32	◎	48	나는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대출 도서를 어떻게 연기하는지 모른다
		×	49	사서는 친절하다
29	33	36	50	나는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기가 편하지 않다
30	34	37	51	도서관 직원들은 나를 도와줄 시간이 없다
31	35	38	52	만일 내가 책을 서가에서 찾을 수 없으면 나를 도와줄 직원이 없다
	×	39	53	도서관 이용방법을 모르면 사서보다 친구에게 물어보는 것이 편하다
	36	40	54	사서의 답변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	55	도서관 직원은 학생들의 불편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
32	37	◎	56	나는 사서에게 어느 정도의 도움을 청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33	38	◎	57	나는 도서관에서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구에게 청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	58	도서관의 자료는 신뢰할 수 있다
34	39	26	59	나는 자료를 찾지 못할 때, 다른 사람들은 많은 자료를 찾았을 것 같아 조급해진다
35	40	27	60	정보조사 시간이 길어지면 초조해지고 포기하게 된다
36	41	41	61	도서관은 나에게 편안하고 친근한 곳이다
중	42	62		나는 도서관에서 집중이 되지 않는다
		×	63	도서관은 나의 학교생활에 중요한 부분이다
37	42	43	64	도서관의 분위기는 웬지 답답하고 부담스럽다
		×	65	나는 도서관에서 다른 사람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열의가 생긴다
38	43	44	66	책을 제대로 찾지 못할 때 내 자신이 부끄럽다
	×	45	67	도서관 자료를 이용하면서 과제를 해결하면 내 자신이 뿌듯해진다
39	44	47	68	나는 도서관 자료를 훠손 또는 분실하게 될 것 같아서 이용을 피한다
	×	50	69	출입통제기기는 통과할 때마다 불안하다
		×	70	도서관에는 내가 필요한 자료들이 충분하지 않다
		×	71	도서관의 도서는 체계적으로 잘 정돈되어 있다
		×	72	도서관에는 오래되고 훼손된 책이 많아 이용하기 꺼려진다
40	45	48	73	도서관의 규칙은 너무 엄격하여 위축된다
		×	74	나는 도서관의 연체료 부과를 이해할 수 없다
		×	75	도서관의 시설 및 기기를 이용하기 위한 안내문이 분명하지 않다
		×	76	대출도서수 및 대출기간의 제한은 불편하다
		×	77	도서관의 각종 기기들은 자주 고장나 있다
		×	78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너무 짧아 조급해진다
		×	79	도서관은 체계적이고 잘 관리되어 있어 신뢰감을 느낀다

\* '◎'는 추가된 문항, '×'는 삭제된 문항, '중'은 중복되어 삭제된 문항